

시로 읽는 한글 맞춤법

시로 읽는

띄어쓰기

시로 읽는 문장부호

시로 읽는 표준어 규정

시로 읽는 외래어 표기법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

정서법(正書法)이란 음성언어인 말을 문자언어, 곧 글로써 올바르게 적는 표기 원칙을 의미한다.

강 희 숙

기억의 창고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날이 보인다. 가을 운동회. 이마에는 청군 혹은 백군의 띠를 두르고 '탕!' 하고 울리는 신호에 맞춰 앞을 향해 뛰다가 운동장 구석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 어머니에 생각이 미치어 어물대고 있을라치면, 아이들은 모두들 총알처럼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늘 꼴찌를 면하지 못했던 딸을 두고 무엇이 그리 자랑스러웠을까? 그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따뜻한 웃음으로 맞아 주시던 어머니……. 내게도 세월은 꼭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불혹의 나이를 넘긴 지금에 와서도 어머니에겐 내가 아직 열서너 살짜리 여자아이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붙들고 "이 애가 바로 제 딸이에요." 하고 자랑하고픈 욕망으로 늘 가슴이 설레는 분. 그러므로 모든 어머니는 영원한 고슴도치이다. 그것도 한쪽 눈이 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순간에도 정서법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깊숙이'의 쓰임과 관련, 파생 접사 '-이', '-히'의 차이를 알아보자.

지은이

강 희 숙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언어학과 교환교수
현,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

『삶과 글』(2002, 조선대학교 출판부, 공저)

『국어 정서법의 이해』(2003, 역락)

『현대음운론 입문』(1997, 한신문화사, 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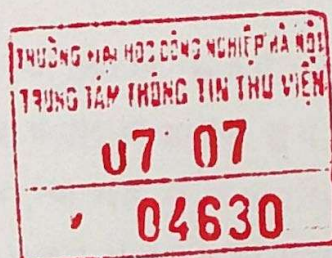
『언어 변이와 변화』(1998, 태학사, 공역) 외 논문 다수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

강희숙



이 책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캐나다 토론토 한국일보의 월요일자 신문에 70회에 걸쳐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책은 시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국어 현상을 정서법(正書法)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지난 2004년,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언어학과에 1년간 머물렀다. 전공인 사회언어학 연구를 위해서였다. 아울러 교민 사회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보는 가운데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다. 그 결과, 이른바 복합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캐나다 정부가 각 민족의 고유 언어 교육을 장려하는 언어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부응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어딜 가든 숨기기 어려운 우리 민족의 뜨거운 교육열에 힘입어 토론토 총영사관 관할 구역만 하더라도 85개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470여 명의 한국어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해 여름, 미주의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술대회에서 필자는 ‘한글 맞춤법과 국어 음운론’이라는 제목의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던바, 그때에 만났던 한국어 교사들과 몇몇 교민들이 자신들이 해외로 이주한 후에 새롭게 바뀐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 낯설어 하면서 별도로 공부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몇몇 지인들을 대상으로, 때로는 신문사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이루어

졌다. 국어 정서법을 쉽게 소개하는 글을 연재해 보자는 토론토 한국일보사 측의 제안을 받은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였다.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주요 어문 규정 가운데 특별히 일반인들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규정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시 텍스트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짚막한 감상과 함께 국어 현상과 어문 규정에 대한 해설을 골자로 하는 매주 한 편의 글쓰기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필자와 캐나다 동포사회가 1년 동안 맺은 귀한 인연의 결실인 셈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책은 일차적으로 일반인들이 시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문법의 각 층위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국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와 관련되는 정서법 혹은 표기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꾀할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 학부 수준 강의의 주 교재나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국어 현상이니 정서법 규정이니 하는 부담은 다 내려놓은 채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한 편의 시 읽기에 빠져 보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라면 비로소 국어학적 지식에 관한 혹은 한 편의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자괴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아무쪼록 이러한 유형의 책 읽기를 통해서나마 시를 읽고 시를 아는 인구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문의 연재가 끝나고 난 후 한 권의 책으로 엮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있었지만, 쉴 새 없는 일의 홍수에 떠밀리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가,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온전히

바치고 난 뒤에야 이 작업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들 가운데는 온전치 못한 구석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 특히 시에 관한 한 문외한일 수 밖에 없는 필자로선 오독과 오분석을 피할 수 없었을 터, 시를 쓰고 읽는 이들의 속 깊은 포용을 바랄 뿐이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맨 먼저, 필자로 하여금 시라는 텍스트 속에서 국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시를 이 세상에 내놓은 모든 시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은바, 나중이라도 이러한 필자의 결례를 용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또한, 게으른 필자에게 마감시간이라는 채찍을 통해 1년 이상 매주 한 편씩 글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토론토 한국일보의 김명규 회장님과 김운영 사장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 책은 아예 싹조차 틔우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 책이 나오느냐고 하는 몇몇 토론토의 독자들의 채근도 큰 힘이 되었다. 대학원생인 박혜숙 선생과 박정자 선생은 시 텍스트의 원전을 확인하는 일을 비롯하여 오자와 내용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큰 효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책의 출판을 기꺼이 허락해 준 글누리출판사의 최종숙 사장님과 편집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봄

무등산 아래 서석동 캠퍼스에서, 필자 씀.

제1장 ____ 시로 읽는 『한글 맞춤법』

김소월 님의 노래	모음조화와 표기 원칙(1) ■ 15
네루다 시	모음조화와 표기 원칙(2) ■ 19
한용운 가가날	모음조화와 표기 원칙(3) ■ 24
나태주 봄 햇볕 새로이 눈을 트면	사이시옷 표기 원칙(1) ■ 28
안도현 3월에서 4월 사이	사이시옷 표기 원칙(2) ■ 32
신경림 파주의 대장장이를 만나고 오며	사이시옷 표기 원칙(3) ■ 36
박남수 마을	언어 화석과 표기(1) ■ 40
이동순 뒤웅박	언어 화석과 표기(2) ■ 44
도종환 역새풀	합성어와 파생어의 /ㄹ/ 탈락과 표기 ■ 48
나태주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용언의 /ㄹ/ 탈락과 표기 ■ 52
정현종 어디 들러서	/으/ 탈락과 표기 ■ 58
문태준 개미	/ㅎ/ 탈락과 표기 ■ 63
김용택 그 여자네 집	두음법칙과 표기 원칙(1) ■ 67
최영미 선운사에서	두음법칙과 표기 원칙(2) ■ 74
박목월 난	두음법칙과 표기 원칙(3) ■ 78
김상미 질투	두음법칙과 표기 원칙(4) ■ 82
노항림 어떤 개인 날	‘이’ 삽입의 오류 ■ 86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준말 표기 원칙(1) ■ 90
김선우 단단한 고요	준말 표기 원칙(2) ■ 95

이재무 제부도	준말 표기 원칙(3) ■ 99
한용운 〈사랑〉을 사랑하여요	준말 표기 원칙(4) ■ 103
정일근 부석사 무량수	준말 표기 원칙(5) ■ 107
문정희 밤(栗) 이야기	파생 접사 ‘-이’, ‘-히’의 표기 ■ 111
도종환 꽃씨를 거두며	명사형 어미 ‘-(으)ㄴ’의 표기 ■ 115
전기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	
	파생 접사 ‘-이’와 명사형 어미 ‘-기’의 구별 ■ 119
고 은 천은사운(泉隱寺韻)	경험의 직접성 여부 구별 ■ 123
최승호 조개껍질 1	감각의 유형화와 표기 ■ 128
김동환 웃은 죄	문체의 차이와 표기 ■ 133
이준관 여름밤	명령법의 유형과 표기 ■ 137
강은교 저물녘의 노래	발음의 영향과 표기(1) ■ 141
홍해리 百草가 百病을 다스리듯	발음의 영향과 표기(2) ■ 145
서정주 니르바나 이야기	기억의 부담과 표기의 통합 ■ 149
유안진 약속의 별 I	의미의 정밀화와 단어의 구별 ■ 154
김동선 미루나무	길이와 분량에 대한 인식과 표기 ■ 158
김춘수 꽃	형용사와 동사의 구별 ■ 162
오세영 바다	‘까닭’과 ‘수단’의 구별 ■ 166
허영자 목마른 꿈으로서	‘수단’과 ‘자격’의 구별 ■ 170

제2장 ____ 시로 읽는 '띄어쓰기'

김형효 길 가는 노래(2)	띄어쓰기의 단위와 원칙 ■ 177
목필균 낡은 기억 속으로	단어의 정의와 띄어쓰기 ■ 181
장석남 멧새 앉았다 날아간 나뭇가지같이	조사의 띄어쓰기 ■ 186
김시천 도화지 한 장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 190
김귀례 촛불	활용어미의 띄어쓰기 ■ 195
나희덕 흰 광목빛	합성명사와 명사구의 띄어쓰기 ■ 199
김용화 그 겨울의 끝	한자어의 띄어쓰기 ■ 203
고정희 우리 동네 구자명씨 — 여성사 연구 5	성명과 호칭어, 직함의 띄어쓰기 ■ 208

제3장 ____ 시로 읽는 '문장부호'

이대흠 마침표를 먼저 찍다	온점의 표기 ■ 215
고재종 파안	느낌표의 표기 ■ 219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가운뎃점의 표기 ■ 223
이향아 찻잔을 씻으며	반점과 가운뎃점의 구별 ■ 228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큰따옴표의 표기 ■ 233
이동순 아버님의 일기장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의 구별 ■ 237
정희성 민지의 꽃	줄임표의 표기 ■ 241

제4장 ____ 시로 읽는 『표준어 규정』

목필균 꽃구경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의 수용 ■ 247
박성룡 메밀꽃	고어(古語)와 신어(新語)의 구별 ■ 251
김경운 내 마음의 소쩍새	준말의 표준어 수용 ■ 255
윤곤강 아지랑이	움라우트와 표준어(1) ■ 260
도종환 담쟁이	움라우트와 표준어(2) ■ 264
문정희 그리운 도깨비	전설모음화와 표준어 ■ 268
강동길 하얀 조가비	‘오 > 우’ 변화와 표준어 ■ 272
정소슬 장날	어감의 차이와 표준어 ■ 276
이진엽 완강한 옥수수	복수 표준어 ■ 280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I	시적 허용과 표준어 ■ 285
정일근 유배지에서 보내는 정약용의 편지	이중모음 /의/의 발음과 표준어 ■ 290

제5장 ____ 시로 읽는 『외래어 표기법』

이생진 바람맞았을 때	받침 표기 원칙 ■ 297
이영식 짜장 기념일	된소리 표기 원칙 ■ 301
김용관 계란 후라이꽃	일본식 발음 표기 원칙 ■ 305
심재휘 그 빵집 우미당	이중모음 [ou]와 장모음 표기 원칙 ■ 310
안성길 죽음처럼 긴 잠	영국식 표준 발음 반영 ■ 314
김동리 비 젖는 언덕에서	오래된 관용 존중 ■ 318
박형준 방주	외래어의 순화 ■ 322

지은이 강희숙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전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언어학과 교환교수
현,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주요 논저

『삶과 글』(2002, 조선대학교 출판부, 공저)
『국어정서법의 이해』(2003, 역락)
『현대음운론 입문』(1997, 한신문화사, 공역)
『언어 변이와 변화』(1998, 태학사, 공역) 외 논문 다수

시로 읽는 국어 정서법

초판 인쇄 2007년 5월 4일 | 초판 발행 2007년 5월 15일

지은이 강희숙

펴낸이 최중숙 | 책임편집 권분옥 | 편집 이태곤 이소희 김주현 양지숙

펴낸곳 도서출판 글누리 | 등록 제303-2005-000038호(등록일 2005년 10월 5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 4동 577-25 문창빌딩 2층

전화 3409-2055 | 팩시밀리 3409-2059 | 전자우편 nurim3888@hanmail.net

ISBN 978-89-91990-51-7 03710

정가 12,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봄이 오는 순간 태양은, 아니 우리의 '해님'은 새로이 기운을 회복하여 다사로운 '햇볕'을 마음껏 품을 터,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 표기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이시옷 표기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스하게 내리쬐는 '해'의 기운을 '햇볕'이라고 적는 것과는 달리, '달님', '별님'처럼 '해'를 높여서 부
르는 말은 '햇님'이 아니라 '해님'으로 표기해야 하니,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책은 시 텍스트 속에서 발견되는 국어 현상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어 규정', '외래
어 표기법'과 같은 정서법(正書法)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국어사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한글 맞춤법

정가 12,000원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



Mã sách: 070704630



9 788991 990517

ISBN 978-89-91990-51-7